

“카드 필요없어요”... 간편지급 서비스 하루 1조1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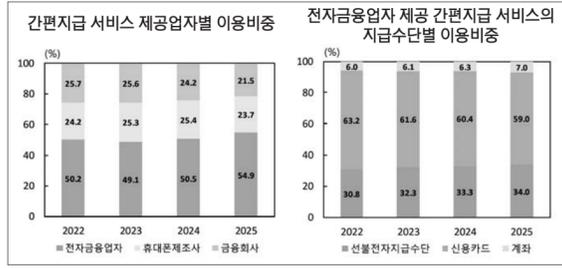
1일 건수 '3557만건'...전자금융업자 비중 55%로 확대 PG·에스크로 동반 성장...결제시장 '플랫폼 중심' 재편

지난해 실물카드 없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모바일 기반으로 결제하는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 규모가 하루 평균 1조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 확산과 플랫폼 결제의 일상화가 맞물리면서 지급결제 시장의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는 양상이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

급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1조1052억5000만원, 이용 건수는 3557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6%, 14.9% 증가한 수치로, 간편지급이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편지급은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나 비밀번호 기반 인증을 통해 결제와 송금이 이뤄지는 서비스다. 통상 '간편결제'로 불리지만, 지급결제 체계상 '지급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간편지급이 보다 정확한 용어로 쓰인다.

서비스 주체별로 보면 변화의 흐름은 더욱 뚜렷하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6064억1000만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하며 1년 사이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의 금융회사 비중

은 2024년 각 25.4%, 24.2%에서 지난해 23.7%, 21.5%로 줄어 들었다. 플랫폼 기반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364만건, 이용액은 1조554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지급대행 이용액이 1조1662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계좌이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결제수단도 각각 21.8%, 19.7% 증가했지만, 가상화폐는 14.1% 감소하며 대조를 보였다.

전자상거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결제

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도 꾸준히 확대됐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501만2000건, 이용액은 1990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4%, 8.0% 증가했다.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가스 요금 등과 같은 고지서를 이메일·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대금을 직접 받아 정산하는 대항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31만9000건, 이용금액은 89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2023년(26만9000건, 664억3000만원)과 2024년(29만7000건, 811억9000만원)에 이어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였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대한건설협 광주시회장에 황인일 대표 “지역업체 수주 물량 확대·권익 보호 앞장”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64·사직)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 20일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제13대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황인일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6월 25일까지다.

황인일 신임 회장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증책을 맡게 돼 책

임이 막중하다”며 “지난 2년간 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으로 분열된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핵심 공약으로 △회합과 통합된 협회 △회원의 수주영역 확대 △작정공기 및 공사원가 확보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불합리한 각종 법령 및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HD현대사호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 K-조선산업 지원방안 모색

목포·완도 등 현장 점검·HD현대사호 방문도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목포세관과 완도지원센터를 방문해 관세행정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K-조선산업을 대표하는 HD현대사호를 찾아 산업 현장과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살폈다.

강 세관장은 목포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고받은 뒤, 서남해안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목포세관 대물 주감시소를 찾아 해상 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서남해안 감시 컨트롤타워로서 마야·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협물품의 반입을 빈틈없이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완도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며 일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윤리 강 세관장은 HD현대사호를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

항을 청취하는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K-조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사호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생산·수출하는 국내 대표 조선사로, 연간 35척(총 100만t) 규모의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 강화와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친환경 선박 수주가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K-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 재정립에 착수했다.

K-콘텐츠 창업 새판 짬다... 생태계 재편

콘진원 워킹그룹 출범, 투자·IP 중심 육성전략 재설계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장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창업 생태계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K-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 재정립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학계·투자·금융·콘텐츠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창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이후 10여년간 유지돼 온 창업 지원 체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가상세계 등 기술 기반 변화가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보다 정교한 지원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회의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육성 전략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콘텐츠 제작사와 창작자의 초기 도전이 촉적대 대형 지식재산(IP)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 및 금융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는 자금 공급 구조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단기 수익 중심이 아닌 장기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투자 모델과 보증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도 제시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콘텐츠 기업의 성장 방식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 틀을 넘어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콘진원은 다음달까지 총 4차례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의 유형별 성장 경로와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윤리 K-콘텐츠를 넘어 K-컬처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콘진원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은 기술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창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니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은행 광주본부, 교육사랑카드 기금 전달

시교육청에 5억2000만원 지역 교육복지 지원 활용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2025년 적립 '광주교육사랑카드' 제후기금 5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농협은행 광주본부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 체결한 '교육사랑카드 제휴계약'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지난해 카드 이용 실적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마련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전달액은 총 61억9000여만원에 이르며, 지역 교육복지 지원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제후기금은 광주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입돼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습 지원과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2025년 적립 '광주교육사랑카드' 제후기금 5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육사랑카드'는 광주지역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농협은행의 신용카드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지역 교육 현장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상적인 카드 사용이 지역사회의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인철원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농협카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지역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농협은행의 신용카드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지역 교육 현장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상적인 카드 사용이 지역사회의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학개미 유턴' RIA 오늘 출시 '세계혜택 소급적용' 부칙 적용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계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봉 출시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9일 RIA 세계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기존대로 23일 상봉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금융투자협회는 RIA 출시 일정 변경 여부 등을 묻는 여러 증권사 문의에 기존 출시 일정을 인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환율안정 3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당달이 상봉 출시도 불투명해 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세계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을 근거로 삼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RIA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23일부터 RIA 계좌를 만들고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연합뉴스

전남신보-함평군 상생발전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전남신보보증재단은 함평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함평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26 함평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점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은 1억6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0억6000만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신청은 오는 1년 이상 함평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3년간 연 3%의 이자를 함평군에서 지원한다.

또한 전남신보는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가드림 금융버스 및 출장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4일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및 금융버스에서 진행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전남신보와 함평군 간의 이번 협약이 함평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함평군 소상공인이 쉽고 빠르게 보증을 이용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